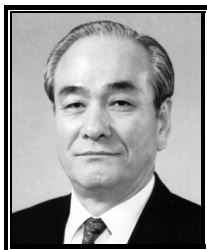


추도사

故 沈貞燮 先生님의生涯

(1926. 1. 25 ~ 2013. 5. 12)



先生님께서 1926년 1월 25일 마산에서 심상원 씨의 장남으로 출생 하시어 2013년 5월 12일 운명을 하시었습니다. 先生님께서 초등학교시절에 3-4학년의 越班을 하실 정도로 우수하시어 주변사람으로부터 神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산중학(현 마산고등학교)을 졸업하신 후 바로 上京을 하시어 1945년 당시 京城大學 理工學部 應用化學科에 입학하시고 1948년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化學工學科를 졸업하시고 同大學校 大學院에 등록하시어 1950년에 工學碩士學位를 取得하셨습니다.學位를 마치시고 그해 3월에 金貞姬 女史와 結婚을 하시고 膝下에 2男 1女를 두시어 多福한 생활을 해 오시었으며 특히 사모님의 內助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學問에 精進하시어 半導體材料分野에 세계적인 새로운 많은 業績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찍이 1951년에 大邱大學 理工學部에 助敎受로 부임하신 다음 1953년에 모교인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化學工學科로 오시어 38년 동안 後學養成과 學問研究에 專念하시었습니다. 특히 6.25 動亂으로 인한 釜山 飢饉시절 구덕산 기슭의 假校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後學養成과 研究에 精進하시었으며 서울 收復後 公能동 工科大學 校舍로 돌아오시어 당시만 해도 생소하기만 하였던 高分子分野에 대한 學問을 開拓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公릉동 캠퍼스 2호관의 124호실은 밤에도 不夜城을 이루었으며 先生님께서도 밤이 늦도록 항상 함께 계시며 指導해 주시던 것이 었그제 같이 느껴집니다.

學問의 길을 택하신 이후 先生님께서 일찍이 高分子科學과 技術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1954년 영국의 Roy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Glasgow 大學院 化學工學科에서 修學하시어 1956년에 공학석사(DRTC)學位를 取得 하셨습니다. 大學院 修學 중 Flory교수의 명강의를 직접 수강하시어 그의 해박한 지식을 소개해 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實驗室에 들리시어 간단하게 들려주시는 멘트 하나가 어려운 問題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며 국제적으로 위대한 學者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1962년에 日本의 東京大學 大學院 工業系研究科 高分子工學專攻에 입학하시어 Shinichi Kikuchi 교수를 指導敎授로 모시고 感光性 高分子에 대한 研究를 修行하시어 1965년에 工學博士學位를 取得하시었습니다. 이 밖에도 美國의 MIT 大學院 化學科에서 研究課程 등 先進外國에서 10여 년간 修學하시어 感光性 高分子分野에서 독자적인 學問의 分野를 이루셨습니다. 1960년 대에 感光性 高分子에 대하여 문외한인 저희들에게 感光性 高分子 및 기능성 高分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分野를 통하여 선진 대국에 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시던 것이 었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해 주시었던 그 感光性 高分子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선진대국들과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半導體 칩 생산의 주소재인 것을 생각할 때 先生님의 앞을 보시는 慧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先生님의 제자 이었던 차기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會長이신 李富燮 會長께서도 先生님께서 지도해 주신 感光性 高分子인 Photeresist를 생산하는 研究를 하시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 생산의 주 원료인 PR을 생산하는 오늘날의 동진세미켄 회사를 설립하시고 현재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先生님께서 학술 활동도 눈부시어 IUPAC총회에서 感光性 高分子에 대한 특강을 비롯하여 한 일 공동 고분자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 등 外國의 수많은 碩學들과 우의를 맺어 오시어 韓國 高分子 學問 발전에 큰 貢獻을 하시었으며 韓國 高分子 學會를 創設하시는데도 中樞的 役割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1979년에 韓國 高分子 學會 두 번째 會長을 맡으시어 國內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학회의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시고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일생을 國內의 고분자 학문 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先生님의 노력과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기리어 1979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科學技術賞·大統領賞을 수상하셨으며 1987년에 工學分野에서 대한민국 學術院 會員으로 推戴 되셨습니다. 서울大學校 在職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1987년에 서울大學校에 環境安全研究所를 設立하시어 所長을 맡으시어 산업 환경문제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오늘날 이들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工業化學의 重要性을 강조하시어 1990년에 韓國 工業化學會를 창설하시고 初代會長에 就任하시어 한국공업화학회를 국제적인 대 학회로 성장시키는데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先生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아무도 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先生님의 創意的이고 未來를 내다보시는 學問에 대한 慧眼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으며 先生님의 따뜻한 격려와 마음씨를 이제 기억 속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先生님, 천국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姜斗煥 (檀國大學校 碩座敎授)

故 沈貞燮 教授 略歷



姓 名 : 沈貞燮

本 籍 : 慶南 馬山市 城湖洞 53의 1

現 住所 : 서울特別市 麻浦區 西橋洞 469의 60

生年月日 : 1926年 1月 25日

學 歷

45. 11. ~ 48. 8. 京城大學 理工學部 應用化學科에 入學하여 서울大學校 工科大学 化學工學科 卒業(工學士)
48. 10. ~ 50. 5. 서울大學校 大學院 化學工學科(工學碩士)
54. 6. ~ 54. 11. 美國 MIT 大學院 化學科
54. 11. ~ 56. 2. 英國 Roy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Glasgow 大學院 化學工學科(DRTC)
62. 12. ~ 65. 3. 日本 東京大學 大學院 工業系研究科 高分子工學專攻(同大學에서 工學博士)

經 歷

- | | | |
|------------------|----------------------|---------|
| 48. 9. ~ 51. 2. | 國立工業 研究所 技士 | 商工部長宮 |
| 51. 3. ~ 53. 1. | 大邱大學 理工學部 助教授 | 大邱大學校 |
| 53. 12. ~ 54. 6. | 서울大學校 工科大学 專任講師 | 서울大學校總長 |
| 54. 6. ~ 60. 1. | 서울大學校 工科大学 助教授 | 大統領 |
| 60. 1. ~ 65. 7. | 서울大學校 工科大学 副教授 | 全上 |
| 63. 3. ~ 65. 2. | 日本 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 研究員 | 東京大學總長 |
| 65. 8. ~ 96. 2. | 서울大學校 工科大学 教授 | 大統領 |
| 87. 8. ~ 13. 5. | 大韓民國 學術院 正會員 | 全上 |
| 87. 9. ~ 91. 2. | 서울大學校 環境安全研究所 所長(兼任) | 서울大學校總長 |

公職 및 委囑

- | | | |
|------------------|----------------------|------------|
| 66. 4. ~ 68. 8. | 韓國肥料 顧問 | 社長 |
| 70. 7. ~ 88. 11. | 政府施策評價 委員 | 國務總理 |
| 72. 1. ~ 91. 2. | 全國經濟人 聯合會 諮問委員 | 會長 |
| 73. 1. ~ 73. 12. | (社團法人) 韓國化學工學會 副會長 | 全上 |
| 75. 10. ~ 77. 9. | (社團法人) 大韓化學會 理事 | 全上 |
| 79. 1. ~ 80. 12. | (社團法人) 韓國高分子學會 會長 | 全上 |
| 80. 1. ~ 81. 12. | 國土建設綜合計劃 審議委員 | 大統領 |
| 81. 2. ~ 83. 7. | 商工部 政策 諮問委員 | 商工部長宮 |
| 82. 7. ~ 82. 7. | 高分子 夏季大學(日本高分子學會) 講師 | 日本高分子學會 會長 |
| 89. 8. ~ 90. 7. | 外資導入審議委員會 委員 | 大統領 |
| 90. 5. ~ 91. 12. | (社團法人) 韓國工業化學會 初代 會長 | 會長 |

賞 勳

1979. 4 『感光性 高分子에 관한 研究』業績으로 大韓民國 科學賞 大統領賞(大統領)
1984. 10 30年 근속 공로 표창(서울대학교 總長)
1991. 2 國民勳章 冬栢章(大統領)